

SK에너지, 2차전지 품질제고 박차

로트(LOT)트래킹시스템 부품이력 추적 ... 불량 여부 자동 전수조사까지

SK에너지가 2차전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동하고 있는 로트(LOT) 트래킹시스템을 공개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인 중대형 2차전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생산라인에 부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로트 트래킹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SK에너지는 2005년 전기자동차(EV)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HEV)에 동력원으로 장착되는 중대형 2차전지 연구에 착수해 2010년 5월 말 대전 유성구의 SK에너지 연구단지에 생산라인을 완공하고 천안공장에서 생산된 얇은 판 모양의 전극을 이용해 2차전지를 제조하고 있다.

불량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표본조사 대신 자동으로 전수조사하는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특히, 모든 부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로트(LOT) 트래킹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최종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완성품은 직사각형 모양의 얇은 판 모양으로 바로 공급하지 않고 4.4V로 완전히 충전해 에이징 룸(Aging Room)에서 21일간 보관해 자연방전하는 과정을 거쳐 불량품을 다시 걸러낸다.

중대형 2차전지는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44개, GM의 전기자동차 볼트에 400개, 전기버스에는 960개가 사용되고 있다.

김상범 배터리개발팀장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모든 공정을 100% 국산화했다”며 “물적·기술적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산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22>